

금속활자장 오국진 선생 별세

고인쇄문화 발굴 · 전승에 큰 족적





- ① 무구정광대다라니경. 751년 이전 통일신라시대의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인쇄물이다.
- ② 작업을 하고 있는 오국진 선생
- ③ 세계기록유산 직지, 직지심체요절의 권하의 활자 및 활자판을 복원한 것이다.
- ④ 월인천강지곡 상권



금속활자장이란? 금속으로 활자를 만들어서 각종 서적을 인쇄하는 장인으로, 금속활자 인쇄기술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고려시대) 창안되었던 만큼 우리 전통공예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01호 금속활자장 오국진 선생이 지난 3월 24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64세. 오국진 선생은 그동안 직지심체요절,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등 수많은 활자를 복원해 우리나라 고인쇄문화 발굴과 전승에 큰 족적을 남겼다.

고 오국진 선생은 1992년 세계 최고(最古) 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복원하고, '직지심체요절'의 연구가 미비하여 금속활자본이라는 증명과 그 구조방법 등에 신빙성이 없다는 일부의 주장을 불식시키기 위해 다년간 실험을 통하여 '직지'가 금속활자본이며 밀랍주조방식으로 인쇄되었음을 실증하고 1996년 그 전부를 완전하게 복원했다.

이 같은 공로로 고인은 1996년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로 인정됐으며 지난해 병환으로 전승활동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명예보유자로 인정됐다.

또한 고인은 조선조 초기의 금속활자 인쇄술에 대하여도 실증적인 실험을 통해 그것이 해포연니법, 즉 주물사주조법에 의한 것임을 밝혀냈으며 계미자판, 갑인자판, 월인천강지곡 등을 차례로 복원하였다.

각서가이기도 한 고인은 김정호의 거작인 '대동여지도' 목판과 현존 세계 최고의 목판인 '무구정광대다라

니경', '훈민정음' 서문 그리고 고려대장경인 '반야심경' 등을 각서하기도 했다.

충북 청원군 현도면에서 태어난 고인은 한학자였던 할아버지 밑에서 어려서부터 한자와 글쓰기를 배웠다. 대전기계공고를 졸업하고 설계사무소, 주물공장, 충북도청에서 일하면서도 서예는 게을리 하지 않았다. 고인은 대한민국 서예대전 초대 작가로, 한국서예가협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우송 이상복 선생(95년 작고)에게 금석문 고증과 서예기법을 사사받았으며 세상을 뜰 때까지 운영했던 동림서관의 '동림'이란 아호도 우송이 지어줬다. 첫물 녹이고 활자 만드는 법을 배운 건 1972년 직지가 공개된 이후다. 성오 신학균 선생, 철제 오옥진 선생으로부터 서각을 배웠다. 각자장 오옥진 선생은 고인의 친척 형님이다.

1991년 퇴직, 이듬해 청주 북문로에 10평짜리 공방 동림서관을 차려 고인쇄문화 발굴과 전승에 헌신해 온 고인은 몇 년 전부터 거동이 어려워지면서도 '남명천화상송증도가' 복원에 매달리다 유명을 달리했다.

"아직도 구텐베르크가 세계 최고 인줄 아는 사람이 많아. 직지를 알리는 일에 좀 더 노력을 해야지" 고인이 남긴 마지막 말이다. ㉠